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이 순 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부정적 영향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학교와 사회 등 환경이 청소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인터넷게임, 채팅, 운전과 같은 활동영역에서 접근한 청소년 행동연구를 살펴봄, 그리고 자살 일탈행동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원인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청소년 행동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행동, 가족, 학교폭력

[†] 교신저자: 이순철,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snchul@trut.chungbuk.ac.kr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기존의 접근방법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듯한 생각이 들며,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연구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현장에서 학교 교장의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응방법을 기존연구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행동원인을 이해하기에도 기존의 접근은 종종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무력감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청소년은 심한 허탈감과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의 자살사이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여도 할말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증가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청소년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문제접근 방법은 행동원인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불신과 불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성인들의 시각에 청소년 행동을 맞추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학교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차이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제행동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먼저 청소년의 정의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체성과 행동의 이해를 위한 틀을 형성하고, 청소년 행동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게임, 채팅, 청소년 운전과 같이 청소년 활동무대의 관점

에서 행동이해의 장(場)을 마련해 보고, 청소년의 실제적 문제행동 중에서, 자살과 우울증, 절도, 폭력 등 일탈행동과 성(性)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고찰해 본다.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기를 아동과 어른의 중간세대 혹은 연결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명확한 역할과 위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생물학적 연령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구분 목적에 따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학교생활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행동은 이러한 연령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필자가 청소년 운전행동을 연구할 경우에는, 16세 이상에서 25세까지 정도를 청소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세 이상이면 성인이지만, 자동차 운전경험이 일천하고, 사고위험이 심각하다는 사실 때문에 20대 전반까지를 청소년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사고분석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기를 모라토리엄(Moratorium)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내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직업참여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보류시킨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최상진 등 2004). 그리고 청소년이 사회, 문화, 체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일 때,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정당성과 발생원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욕구불만의 해소과정이라거나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서의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청소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최상진 등(2004)은 심리주의적 청소년 발달관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청소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환경중심적 청소년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이 발달과정에서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심리이자 행동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와 사회에 의존하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부모와 사회에 희망과 웃음과 평화를 주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서도 주위의 사람과 사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행동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거론하고 걱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미숙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불합리한 영향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환경측면에서 접근한 청소년 행동연구

청소년의 행동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학교에서의 교육과정도 청소년의 행동형성에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 청소년의 행동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형성에서 주요한 환경이 되는 가족은 1960년대 이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가족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크기가 작아지고 가족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정현숙, 2003).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정의 영향으로 분석할 때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는 청소년 행동의 이해 폭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 연구에서 가족에서의 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현숙(2003)은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져가는 가족에 대한 시각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적이어서 두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바람직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별거가족, 맞벌이 가족 등을 결손가정이라고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되어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의 차이, 부모역할모델에서의 남녀차이, 부모의 학업관리감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문제가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사회, 개인특성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훈구(2004)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외국의 개관연구 (Amato와 Keith, 1991)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세 가지 이론, 아버지의 부재이론, 경제적 불리이론과 가정갈등 이론의 적용여부를 검증했다. 아버지 부재의 자녀가 통제 집단에 비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 아버지 부재 이론이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으로 긍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불리이론은 지지를 크게 받지 않았으며, 가정갈등 이론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 했다. 정상가정이라도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의 행복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혼구(2004)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혼이 자녀와 부모에게 외국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첫째,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담에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이혼하면 외국의 부부와 달리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자녀의 부모 방문이 어려워지며, 셋째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이혼부모 특히 이혼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넷째 이혼자녀의 거주권이 우선 고려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박광배와 지형기(2004)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생각할 때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광배 등(2004)은 가정폭력의 기제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적 요인, 둘째 생리 화학적 요인, 셋째 심리학적 요인과 넷째 아동기의 경험 등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박광배 등 2004, Tolman과 Bennett, 1995).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해치고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한 남성은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사회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부정적 사회경험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가정폭력은 생리 화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나 아동기의 폭력경험보다는 남성이 사회, 경제적 능력에서 좌절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생리 화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아동기의 폭력경험은 부정적 사회경험의 스트레스 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행동형성과 유지에 학교생활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사회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교교육이 가정과 사회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준호(2003)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소위 결손가정과 가해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 학교폭력의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현숙(2003)이 강조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외면적인 가족형태보다는 가족기능 측면의 분석이 유효하다는 지적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김준호(2003)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동원인을 특이하게 보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학교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집단을 형성하여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학우들의 금품을 빼앗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보고 하였다. 학벌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퇴폐향락 문화에 접하게 되어 유흥비가 필요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만연된 폭력용인 풍토는 폭력에 대한 허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종철과 김인경(2000)도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또래 따돌림이 행동형성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성인의 경우, 고독,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장애를 보일 수 있고 동료들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경우는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장애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종철 등 2000, Kupersmidt, Coie & Dodge, 1990). 그리고 한종철 등(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반면, 가해/피해 학생집단은 자기통제가 부족하고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피해학생은 신체적 공격은 적은 편이나 자기통제가 부족하고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청소년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월드컵 거리응원과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사회활동현상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 거리응원은 청소년 행동과 가치변화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통신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문화는 그들만의 소중한 중요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된 기성세대는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왠지 불안하고 위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사이버 공간과 실생활 공간과의 거리에서 올 수 있는 실망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까 염려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하여 새로운 청소년 놀이문화가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고 보아야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네트워크 세대가 더 이상 가상세계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현실세계로 나온 것이다. 월드컵 거리응원의 주요원인은 즐기고 애기하고 싶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패션, 소리 지름과 울동, 이러한 모든 것이 시청 앞 광장에서 마음껏 표출되었다. 서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거나, 있다하더라도 기성세대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움츠러들고 눈치 보던 것에서 당당하게 청소년의 존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중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사건, 혹은 사회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거리응원이후에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는 소외감과 우울증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았던 청소년에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월드컵 거리응원과 함께 촛불시위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모임형태이며, 의사표현 모임으로 정착되고 있고, 여기에 청소년은 자신들의 존재를 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면에서 사회적, 가정적 도움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가치나 생각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의 충고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배워가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는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에서는 결코 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을 기성세대와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드컵거리응원이나 촛불시위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현실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현재의 자기 위치와 역할을 등한히 할 가능성도 있으며, 청소년의 막연한 불안이나 우울감을 표출하는 목적 없는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와 가정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청소년의 창조와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영역측면에서 접근한 청소년 행동연구

청소년의 행동이 표출되는 활동무대 혹은 활동영역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성연과 방은령(2002)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의 빠른 획득이 최우선이었으며,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문서작성, 그리고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단점으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장애가 크다고 하였고, 대학생은 시간소모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이용에 관하여 고등학생은 게임, 자료검색, 이메일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대학생은 자료검색, 이메일, 게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채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등학생은 정보교환과 이성교제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고, 대학생은 정보교환과 습관적으로 컴퓨터 채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채팅을 하게 된 동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호기심

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채팅의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수면과 공부방해를 들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컴퓨터를 사용한 게임과 채팅은 청소년 행동의 중요한 매개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수면과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청소년은 느끼고 있다. 박금주(2003)는 전자게임(컴퓨터게임 포함)이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전자게임이 청소년의 시각, 공간, 그리고 운동과업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과보호와 게임 과다 사용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전자게임이 또래와의 실제 사회화과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폭력적인 전자게임이 청소년 초기동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언론매체(국민일보, 2004.3.4)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채팅에 열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성을 쉽게 사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운전과 폭주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생활에 요구되는 기능(skill)은 다양하지만, Mental skill, Motor skill 그리고 Social skill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청소년에게는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운전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skill)중

청소년에게는 Motor skill이 어느 세대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시킬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 운동반응, 지능 등에 있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뛰어나다. 즉, 운전조작의 민첩성, 정확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적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다. 심신기능의 지표로서 인간의 반응시간을 비교해 보면 20세 ~ 25세가 가장 짧은 반응시간으로 위험물의 발견이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반응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반응시간이 짧으며, 그 외 심신기능인 감각 지각, 기억, 판단력, 동작능력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뛰어나다. 이러한 능력만으로 본다면 청소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장 적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심신기능을 사고원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심신기능이 우월한 청소년층의 사고위험이 적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위험이 많은 위험 운전자일 경우가 많다. 즉 심신기능의 우월이 오히려 위험상황과 연결되는 일관성 없는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신기능의 관계보다는 사고 위험성과 안전태도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20대 운전자의 안전태도가 30대와 40대 운전자의 안전태도보다 낮다는 것이 사고원인으로 작용하여 사고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운전자는 운전기술을 과신하고, 위험에 관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다는 태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법규를 중시하지 않으며, 위반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고, 성격 면에서는 상황변화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잃기도 한다(이순철, 2000).

위험행동 원인분석에서 접근한 청소년 행동연구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청소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자살사이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김교현(2003)에 의하면,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기분으로, 그리고 우울증은 우울 증상들로 구성된 장애범주로 생각한다. 우울증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자살충동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은 비교적 단시간에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고, 자살생각, 충동, 의도, 계획, 시도 등도 자살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요 관심사이다. 김교현(2003)이 인용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종종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1997)의 조사에서는 중고생 응답자의 81%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수치의 정확성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청소년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교현(2003)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우울증 및 자살 유발 조건과 관련되는 특징으로, 사회적 가치의 확일성, 부패와 불신 풍조, 조급(빨리빨리)성과 성인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학교폭력의 원인 분석에서 김준호(2003)가 지적한 학벌 중심사회, 퇴폐향락적 문화와 사회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다.

박영신(2003)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인간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소년원생과 중고등학생을 비교 연구하였다. 소년원생 부모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부모의 적대, 무관심, 거부적 태도 및 낮은 사회적 지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괴로울 때 친구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으며, 범죄경력이 많아질수록 범죄경력이 많은 공범친구와 어울린다고 보고 하였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박영신(2003)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교사의 적대적 태도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촉진시키고,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이 폭력피해 경험을 하게 하고, 피해경험은 폭력가해 행동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행동변화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청소년 자신들만이 만들어 내는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당하는 행동이 자신들의 책임과 통제 밖의 영향에 의해 조그마한 불씨가 증폭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청소년을 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연구를 개관해 보았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위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규정해 보려 하였고, 그 틀 속에서의 청소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청소년을 미숙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야하는 대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현재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 행동자체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의 행동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행동에 어떠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심리학, 사회학, 가정학, 아동학의 각 관점을 연결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관계를 선입견 없이 연구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연구자에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폭력, 따돌림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이해는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와 관련 행위들과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월드컵 거리응원과 촛불시위등과 같이 새로운 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동이 나타나는 장(場)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연구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3). 전자게임과 청소년발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6-207.
- 국민일보 (2004.2.4). 청소년들의 채팅실태와 대책.
- 김교헌 (2003).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8-209.
- 김준호 (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사회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3-204.
- 박광배, 지형기 (2004).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법이념의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69-86.
- 박영신 (2003).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12-213.
- 이순철 (2000). *교통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47-53.
- 정현숙 (2003). 다양한 가족에서의 청소년발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1-202.
- 조성연, 방은령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 조사연구: e-mail과 채팅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4(2), 101-123.
- 최상진, 김양하, 황인숙 (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1-28.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1), 26-46.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Tolman, R. & Bennett, L. (1995).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87-118.
- 1 차원고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접수일 : 2004. 3. 22



The understanding frameworks for adolescent's specific behavior

Soon-Chul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This paper reviewed the researches of adolescent's behavior as following three main viewpoint in order to defend the impairment of adolescent's rights to their own life style: (1)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factors(family, school and society) to adolescent's behavior, (2)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activity areas or activities to their behavior and (3)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behavior by the analysis of their delinquent activities. For further understandings of adolescent's behavior, the dynamic research approaches and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necessary.

key words : adolescent's behavior, family, bullying at school